

중공의 박해속에서 더욱 장대해진 파룬궁

1999 년 7 월 20 일, 강택민과 중공은 서로 리용하여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강택민은 《3 개월내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고 외치고 나서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무너뜨리고 육체상에서 소멸》하는 반인류집단전멸정책을 실시했다.



산둥유방 안구 파룬궁 수련생 리수진(李秀珍)은 “찐싼런”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선후로 19 번 랍치되었고 로동

교양 9 년판결을 받았으며 111 번이나 음식주입되었고 전기충격, 구타 등 10 여가지 혹형을 당했지만 파룬궁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시종 《파룬따파가 좋다.》고 외치면서 중공의 박해를 반대해 나섰다.

연길시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주희옥(朱喜玉)은 진달래광장에서 행인들에게 파룬궁박해진상을 이야기하고 진상자료를 배포하며 “3 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했다는 이유로 26 차 랍치되었고 연변정신병원과 장춘흑취자로교소로 압송하여 매일 사정없이 구타하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전기충격을 당해 살점이 뭉쳐 떨어졌으며 온몸을 굽히우고 도려내고 꼬집혀 상처뿐이었다. 주희옥은 모진 박해속에서도 굴함없이 “파룬따파가 좋다.”고 외쳤고 “사부님이 좋다.”를 노래했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이 두가지 사례는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모진 박해가 10 년동안 지속되었지만 파룬궁수련생들의 “찐싼런”에 대한 신앙은 더욱 견정해졌고 파룬궁은 더욱 강대해졌으며 현재 전세계 114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 왜 파룬궁은 이렇게 강대해졌는가? 수련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해줄뿐만아니라 순정한 법리, 고상한 정신 및 상서로운 공법으로 진정한 수련생들을 높은 층차에 이끌고 사회의

온정과 도덕수준을 높이는데 헤아릴수 없는 정면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파룬궁진상을 알게

된 수많은 세인들은 중공의 거짓선전에 다시는 속히우지 않고 파룬궁을 환

영하고 지지하면서 친히 파룬궁수련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각성한 중국민중들은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하고 오직 중공을 해체해야만이 진정으로



박해를 정지시킬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 5 천 7 백여만 용사들이 퇴당, 퇴단, 퇴대했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초불집회를 열고 동수를 추모



2009 년 7 월 16 일 저녁, 1 천여명 파룬궁수련생들이 초불을

들고 미국워싱턴 DC 국가광장에서 중공이 박해로 세상을 뜬 3 천여명 동수들을 추모했다.

신 기 한 천 문 단 (天文蛋)



지난 7월 22일, 세기적인 대일식이 지난후 천진시당경구역 시민 진선생님이 기른 암탉이 신기한 달걀을 낳았는데 달걀에 일편식(日偏食)도 안이 그려져있었다. 이 신기한 “일식단”(日食蛋)은 천문적인 일식과 우연의 일치이겠는가?

중국고대에는 줄곧 “천인합일”(天人合一)리론이 있었고 천상의 변화는 지상, 인류의 변천과 대응관계가 존재한다고 여겼다. 중국에서 자주보게 되는 “천문단”(天文蛋)은 신비하기 그지없다.

1987년 9월 22일, “일환식”(日环食)이 나타날때 호북성수주시의 한 암탉이 별도안이 있는 “일식단”을 낳았다. (왼쪽 사진)

1988년 3월 18일 오전, 일식이 나타날때 강소성태주시에 사는 소학교 5학년학생 정태운이 기른 노란 암탉이 낳은 달걀에 별등 천체도안이 있었고 사천성자공시 천서남광산구역 운수대대

호세준집에서 기른 한 암탉이 복두성도안이 있는 달걀을 낳았다.

2002년, 6월 10일, 일환식이 생긴 이튿날 중국호북성무한시 바서촌의 한 불구자 녀청년 왕화국이 기른 양계장의 한 암탉이 일환식모양의 천문도안을 새긴 신기한 달걀을 낳았었다(중간 사진).

2001년, 흑룡강성 건구강농강국 칠성농장 차대 퇴직원 류학순집에서 기른 거위가 낳은 알에 “신이래도”(神已来到)、“왕”(王)이라고 쓴 한자가 새겨져있었다. (오른쪽 사진)

중국고대 사람들은 “천인합일”을 소중히 여겼으며 우주, 지구, 인류의 변화는 서로 관통되며 천상의 변화는 지구의 변화에 대응되므로 일식과 일식단이 나타남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진화론을 흔들어놓은 “동물대폭발” 현상

1909년, 왈크가 발견한 캐나다의 빠이지스에암석에서 여러가지 해양동물의 화석을 관찰한 결과 한무기(寒武纪) 시대에 동물들이 갑자기 대량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90년대초의 중국과학원 남경고사알연구소 전문가인 진균원(陈均源)의 운남성등강현화석의 연구성과인 “동물대폭발” 학설은 세계를 놀래웠다.

등강화석의 년대는 캐나다 빠이지스에 암석보다 더욱 이르러 세계에서 제일 오랜 동물화석이다. 최근 국제학자들이 등강석층을 고찰하고 한무기전에는 지구에는 아무런 복잡한 동물이 없었다고 확인했고 한무기초기 5억 3천 만년전에 갑자기 등강모천산의 황색암석층에



부동한 형태의 동물화석이 수많은 나타났다. 전세계에서 발견한 한무기의 화석은 50여문이 있는데 아무런 진화연변의 흔적이 없었다. 등강화석이 나타난 생물연화과정은 동일한 환경에서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동물이 50여문이나 갑자기 동시에 나타났던 것이다.

백년동안 전해내려온 다윈의 진화론학설은 이 돌발성적인 현상을 해석할수 없고 더구나 부동한 동물문이 갑자기 동시에 나타난후 감소되었을뿐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물은 진화에서 온것이 아니라 신비한 힘에 의해 생물물종의 기원과 연화가 있게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기원에 계발을 주고 있다.